

국내 은행·기업, 일본에서 자금조달 확대

2011년 엔화표시채권(사무라이채권) 발행규모가 약 3700억엔으로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여 국내은행 및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외화조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.

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수출금융 및 해외사업자금도 일본 은행들이 지원, 미국과 유럽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외화를 일본 자금으로 시프트하고 있음.

□ 달러표시 외채발행비율 저하

- 우리나라의 기업·금융기관들이 작년에 약 300억달러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
 - 통화별 비율은 유로시장을 포함한 달러표시가 전년의 67%에서 55%로 크게 저하됨. 반대로 엔화표시는 19%로 8%포인트 상승, 달러표시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
- 우리나라는 GDP대비 무역액 비율이 90%로 매우 높아, 달러 중심의 결제용 외화에 대한 수요가 큼
 - 제조업부문의 적극적인 해외사업은 외화수요를 늘리고 있으나, 원화는 국제통화로서의 신인도가 낮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

□ 미국과 유럽은 한국 투자에 신중

- 사무라이채권을 발행한 포스코 등 국내기업은 외화수요가 많으나, 미국·유럽의 투자자들이 유럽재정위기의 심화로 리스크 회피적인 행동을 취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신중한 자세
- 이 때문에 한국의 금융기관이나 포스코 등의 기업들이 세계 제 3위의 채권시장인 일본에서 조달을 가속화하고 있으며, 엔을 무역결제 등에 사용하는 것 외에, 달러로 바꿔 용자나 채권상환에도 활용하고 있음
- 국내 기업이 일본계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간접금융에서도 일본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음
 -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작년, 서울에 글로벌코리아영업부를 신설하고 해외 주요거점에도 한국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한국기업에게 세계적인 규모의 용자 기능을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음
 - 이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에서 해외사업을 가속화함에 따라 자금수요가 큰 대기업그룹과 거래확대를 겨냥한 것임
- 한국의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에서 최초로 210억엔의 엔화표시 협조용자를 조달한 바 있음
 - 이에 대해 일본 은행관계자는 「외화는 한국의 은행보다도 저리로 공급할 수 있다」고 비교우위를 강조

□ 일본의 초대형은행과 제휴

- 닛케이 보도에 의하면, 한국은 발전소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필수적인 금융기능 강화를 위해 일본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임
 -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하순, 일본의 3대 초대형은행(메가뱅크)과 프로젝트 용자에 관한 협의체를 발족
 - 작년 국내기업들의 해외 플랜트 건설수주액은 약 65억 달러로 과거 최고치를 갱신
 - 그러나 최근 안건의 80%이상이 사업규모 5억달러 이상으로 대형화되고 있어, 수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주자의 자금조달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음
-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을 16조 5천억원으로 설정, 전년대비 25%증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
 - 그러나 관계자에 의하면, 자기자금 조달 한계로 일본 초대형은행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한 용자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
 - 수출입은행은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일본의 국제협력은행(JBIC)과 연대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,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용자나 용자보증 리스크를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 - JBIC과 관련 안건이 증대될 경우, 일본의 민간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됨
-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통화스왑협정을 종래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증액하였으나, 일본 재무성에 의하면 현재까지(3월6일) 사용실적이 없음

-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경우, 일본은 달러나 엔을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고, 한국은 외화부족이나 원화 환율 급락을 방지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

□ 시사점

-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사무라이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낮은 조달비용, 자금조달처와 제휴를 통해 수주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임
- 그리고 여기에는 엔고도 일조하고 있는데, 즉 지금처럼 엔고하에서는 환차익을 노린 채권발행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
 - 조달한 엔화자금을 높은 가격으로 외화로 전환한 다음, 엔저로 반전할 때, 비싸진 외화를 매도할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음
 - 사무라이채권 발행이 증가하게 되면 엔화를 외화(예컨대 달러)로 교환, 운용하는 일종의 엔캐리(yen carry trade)와 같은 거래가 확대되기 때문에 엔고진행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음
- 한국입장에서는 엔화 의존도에 신경이 쓰이는 측면도 있으나, 일본으로부터 저비용으로 조달된 자금이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사용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2.3.7)외